

# 도심 제한속도 60km→50km 하향된다

앞으로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지난해(잠정 4191명)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5년 기준)는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동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동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이하에서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서울·세종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km이하, 10km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

## 보행자가 횡단보도 '동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노인 보호구역 2천개로 확대·통학버스기사 자격제 운전면허 합격기준 1종 70점·2종 60점→80점 이상

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한다.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회의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구역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 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2시간) 한다.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 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부를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량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개선한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인다.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시티 장갑 끼고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주)광주신세계(총괄 임원 최민도)에서 고객이 추위에 손을 보호하고 패션도 챙길 수 있는 인기 아이템 장갑을 살펴보고 있다. 2층 메트로시티 매장에서는 모, 가죽, 패딩 등을 소재로 이용한 다양한 색상의 장갑을 대거 마련해 판매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가죽에 핑크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이고 가격대는 9만원 선부터 16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메트로시티 장갑은 1층 이벤트홀에서도 1월 28일까지 30% 할인 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 기아차, 설 맞이 귀향 차량 대여 이벤트

7박8일간 300대 실시

기아자동차가 설 연휴를 맞아 300대의 귀향 차량을 고객들에게 무상 대여해주는 7박8일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아차는 전국 지점에서 K7, K7 하이브리드, K5, 스타터, 스토닉, 레이를 설 귀향 차량으로 지원한다. 만회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기아차는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해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간 귀향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귀향차량 시승을 통해 고객들이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기아차의 우수성도 함께 체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13 가정을 선정해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지원하는 '기아차와 함께 하는 행복한 초록여행'도 기획하고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5박6일간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이 지원된다. 차량의 유류는 완충패 있으며 여행경비, 귀성신물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스

## 돌아온 복고 트렌드...유행하는 빈티지 레트로 아이템

최근 필름 카메라, 흑백 사진, 흑백 사진 등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아이템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아날로그 감성'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IT·전자기기 업계도 아날로그적 매력을 풍기는 제품을 선보이는 분위기다.

아마존뮤직코리아의 스피커 'TSX-B7'는 심플하면서도 복고적인 디자인으로 출시 이후 젊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이다.

제품 외관에는 레트로 디자인 외에도 누구나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아날로그 조작법이 장착됐다. 전면부에는 오디오 소스 볼륨 프리셋을 다이얼 방식으로 채택해 손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상단부의 USB 단자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고 후면부의 안테나를 사용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라디오를 즐길 수 있다.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시계 및 FM 라디오, 블루투스 등 실용성을 가미한 기능들도 갖추고 있다. 사용자가 감각스러운 알람 소리에 놀라지 않게끔 사전에 설정된 알람 시간 3분 전부터 서서히 소리 볼륨을 높여 재생하는 기술로



아마자가 독자 개발한 인텔리 알람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주변의 스마트 기기(안드로이드 전용)들과 맞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한 근거리 무선 통신(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 등도 제공된다. 옛 타자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도 있다. 알코의 'K850 알루미늄 레트로 옛지는 타자기의 감성을 이어받은 기계식 키보드다.

K850 알루미늄 레트로 옛지 키보드에는 신형 카일 백축이 적용됐다. 카일 백축은 기존의 청축에 비해 축 내부 단자에 특수도금을 적용해 내구성과 내마모성에서 더욱 뛰어난 제품이다. 1.9mm의 빠르고 정확한 반발력으로 FPS 같은 슈팅게임과 MMORPG를 즐기기에 좋다.

기본적인 윈도우 단축키 외에 멀티미디어 단축기도 제공해 게임뿐 아니라 음악 감상시 단축키를 이용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